

# ‘신의 아들’: 남성 무용수들의 병역특례 인식과 경험

권예진<sup>1</sup>, 이종영<sup>2\*</sup>

<sup>1</sup>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sup>2</sup>한국체육대학교 사회체육학과

## ‘Son of God’ : Perception and Experience on Military Service Exception of Male Dancers in Korea

Yea-Jin Kwon<sup>1</sup>, Jong-Young Lee<sup>2\*</sup>

<sup>1</sup>Graduate School, Korea National Sport University

<sup>2</sup>Community Sport, Korea National Sport University

요 약 이 논문은 한국의 병역의무에 대하여 남성무용수들이 갖고 있는 경향성을 살펴보고 이들이 병역특례에 대해 어떠한 인식과 경험을 하는지를 심층적으로 구명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연구방법은 질적연구방법을 토대로 진행하였다. 자료수집은 병역특례 남성 무용수 3인과 병역 비특례 남성 무용수 3인의 총 6명을 대상으로 비참여관찰, 심층면담, 문헌자료 수집 등을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귀납적 범주화를 통해 질적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남성무용수들은 한국남성으로서 부여된 병역의무에 대하여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공통적 인식이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병역의무이행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시각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병역 특례자들은 다른 동료 무용수보다 높은 우월감을 느꼈으며 주위의 높은 관심으로 인해 지나친 사회적 감시를 경험하고 있었다. 또한 병역 비특례자들은 군복무를 통해 단절(경력, 경제)을 경험하며 무용에서 이탈하거나 병역특례제도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경향성이 나타났다.

주제어 : 경험, 남성, 무용수, 병역특례, 인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onder men’s perception and experience of military service revealed in Korean society by looking into the military service exception cases of a Korean male dancer. this study used non-participation observation, in-depth interviews and bibliographic data, etc. targeting a total of 6 persons covering 3 male dances who received military service privileges by winning a prize at home & overseas dance concours, and another 3 male dancers who fulfilled military duties. Then, this study did a qualitative analysis of the collected data. The deducted results through this process are as follows: First, all the surveyed male dancers consented to the necessity of military service as Korean people, but it was found that they wished to get military service privileges in order to maintain the career they actually had achieved. Second, the male dancers, who fulfilled military service, were found to make endless effort to catch up with the tendencies of dance suited for the relevant period after returning to society due to career discontinuity and social severance caused in the process of fulfilling military service.

**Key Words** : Experience, Male, Dancer, Military Exception, Perception

## 1. 서론

### 1.1 연구의 목적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적

을 가진 국민들은 국토방위와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1]. 이러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남성은 신체적·정신적 특이 사항이 없는 한 만 19세부터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해야

\*Corresponding Author : Jong-Young Lee(jylee@knsu.ac.kr)

Received March 14, 2018

Accepted April 20, 2018

Revised March 30, 2018

Published April 28, 2018

한다.

하지만 최근 정부는 군 복무로 인해 각 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한시적으로 잃을 수 있다는 문제점을 인식하였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병역 특례 제도를 시행하여 각 분야의 우수한 인재들에게 대체 복무를 통해 군 복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혜택을 주었다.

이에 따라 병역 특례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야는 공공기관, 전문연구산업체, 경제 및 재화 생산업체 등 사회영역 전반에 고르게 분포하여 있으며, 그 중 예술·체육 분야에서 무용은 정부가 지정한 대회(국제예술경연대회 3개, 국내예술경연대회 3개)의 상위 입상자(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를 대상자로 선정하여 병역특례자격요건[2]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병역 특례 자격 요건을 받기위해 남성 무용수들은 정부에서 지정한 무용 대회에서의 입상을 갈망하고 있다. 이는 병역 특례 여부가 무용수로서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남성 무용수의 경우, 군 복무 기간 동안 발생하는 무용활동 공백으로 인하여 개인이 쌓은 일정기량이 도태될 수밖에 없고, 이는 군 복무를 마치고 사회로 돌아왔을 때 다른 동료들 보다 무용수로서의 표현능력이나 신체적 기량이 저하되기 때문에[3] 병역특례 제도에 얽매이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남성 무용수들의 삶에 병역 특례가 중요한 요인이 되는 만큼 일부 국내외 무용 콩쿠르를 통해 병역 특례를 부여받음으로써 입상자들에 대한 곱지 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두드러졌으며 이에 따른 무용 콩쿠르의 시상 절차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 등의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제기되는 경우가 나타났다[4].

즉 이처럼 병역특례를 둘러싼 여러 사회적 이슈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부분을 고려하였을 때 병역에 관한 여러 사안들은 한국 남성들뿐 아니라 사회구성원 전반에 있어 중요한 문제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사실 어떠한 의혹에 대한 해소보다도 그러한 상황을 직접적으로 겪는 남성 무용수들의 입장에서 해당 현상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은 점진적으로 이뤄지고는 있으나 다소 미약한 수준이다.

다시 말해 병역 특례와 같은 직접적인 혜택으로 인하여 정신적 물리적 혜택을 받거나 제한적인 여러 조건들에 대해 그들의 입장에서 직접적인 그들의 인식과 경험

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제도들이 어떠한 기능적 장단점이 있는지 심층적으로 규명되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문제점들을 해소하고자 다각적인 시각에서 접근한 노력들이 이뤄져왔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체육 요원의 병역특례에 관한 연구[5-7]와 남성무용수의 병역특례에 관한 연구[8,9], 병역의무 비특례자들의 경력단절에 관한 연구[3] 등에서 일부 연구가 축적되어져 오고는 있으나 미흡한 실정이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다루는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처럼 선구적 연구들에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진행해오고 있지만, 실질적인 현상을 규명하는데 있어서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한국 남성 무용수의 병역 특례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살펴봄으로써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남성들의 병역 의무 및 특례에 대한 인식을 보다 심층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해결하기 위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남성무용수들이 병역 의무 및 특례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둘째, 한국 남성무용수들의 병역 의무 이행 및 병역특례 경험은 어떠한가?

## 2. 연구방법

### 2.1 질적 사례연구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 남성 무용수의 병역 특례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남성들의 병역 의무에 대한 인식을 심층적으로 규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질적 연구방법(qualitative methodology)을 적용하여 심층적으로 탐구하고, 이해하여 기술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국내·외 무용콩쿠르에서 입상하여 병역 특례를 받은 남성 무용수들과 병역 특례를 받지 못한 남성 무용수들을 선정하여 한국 남성 무용수의 병역 특례 사례가 무용계에 종사하고 있는 남성 무용수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관련 문헌 수집, 비참여관찰, 심층면담을 자료수집 방법으로 이용하였다.

2.2 연구 참여자 선정 및 이해

2.2.1 연구참여자 선정

이 연구의 연구 참여자는 질적 연구에서 주로 이용되는 유목적 표집법(purposeful sampling)을 이용하여 선정하였다. 유목적 표집법은 연구문제에 적합한 상황에서 모집단의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대상자를 표집하는 방법으로 이러한 방법을 통해 연구의 진실성(credibility) 또는 신뢰성(trustworthiness)을 높여 특정상황에 대한 심화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10].

2.2.2 연구 참여자 이해

이 연구의 참여자는 국내·외 무용콩쿠르에서 입상하여 병역 특례를 받은 남성 무용수와 병역 특례를 받지 못한 남성 무용수를 대상으로 6명을 선정하였으며, 연구 참여자들의 신분과 개인적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연구 참여자를 가명으로 기록하여 개인적 비밀과 익명성을 보장하였다.

Table 1. Personal data of research participants

Name	Age	Activity year	Degree of education	Special case of military service
KIM OO	30	12	University	X
PARK OO	35	18	Master	X
NA OO	29	10	University	X
JANG OO	31	14	Master	O
KIM ☆☆	36	20	Master	O
SHIN OO	23	7	University	O

2.2.2.1 연구 참여자 1(김OO)

남성 무용수 김OO는 현재 30세로 무용 경력 12년차이다. H대학교에서 한국무용을 전공하였으며, 병역 특례를 받지 못해 현역으로 군 복무를 마쳤다.

2.2.2.2 연구 참여자 2(박OO)

남성 무용수 박OO는 현재 35세로 무용 경력 18년차이다. H대학교에서 현대무용을 전공하였으며, 동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 중이다. 병역 특례를 받지 못해 현역으로 군 복무를 마쳤다.

2.2.2.3 연구 참여자 3(나OO)

남성 무용수 나OO는 현재 29세로 무용 경력 10년차이다. S대학교에서 현대무용을 전공하였으며, 병역 특례를 받지 못해 현역으로 군 복무를 마쳤다.

2.2.2.4 연구 참여자 4(장OO)

남성 무용수 장OO는 현재 31세로 무용 경력 14년차이다. S대학교에서 현대무용을 전공하였으며, 동 대학원 석사를 졸업하였다. 군 복무는 국내·외 콩쿠르에서 입상하여 병역 특례로 면제되었다.

2.2.2.5 연구 참여자 5(김☆☆)

남성 무용수 김☆☆는 현재 36세로 무용 경력 20년차이다. H대학교에서 현대무용을 전공하였으며, 동 대학원 석사를 졸업하였다. 군 복무는 국내·외 콩쿠르에서 입상하여 병역 특례로 면제되었다.

2.2.2.6 연구 참여자 6(신OO)

남성 무용수 신OO는 현재 23세로 무용 경력 7년차이다. K대학교에서 한국무용을 전공하였다, 군 복무는 국내·외 콩쿠르에서 입상하여 병역 특례로 면제되었다.

2.3 자료수집

2.3.1 비참여관찰(Non-participant observation)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가 직접 참여하지 않으면서 연구 참여자를 관찰하는 비참여관찰을 실시하였다. 비참여관찰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개입하지 않고, 그 사건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방법이며[11], 이를 통해 면담 내용을 확인하거나, 언어로 표현하기 힘든 내용이나 행동 등에 관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

이 연구의 비참여관찰은 기간별로 1차와 2차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1차 관찰은 예비 관찰로 2016년 9월부터 11월까지 무용 연습실에 직접 방문하여 연구 참여자들을 관찰하였다. 2차 관찰은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 무용 연습실 및 공연장에 직접 방문하여 관찰하였으며, 연구 참여자의 개인적 특성에 대하여 파악하고 현장노트에 기록하였다.

2.3.2 심층면담(in-depth interview)

면담은 연구 참여자로부터 정보, 의견, 신념 등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표현하도록 유도하는 언어적 의사교환 또는 목적을 가진 대화이다. 특히 심층면담은 관찰이 어려운 상황이나 연구 참여자의 내적 세계를 이해하고 발견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자료수집 방법이다[11].

심층면담이 이루어지기 전에 연구 참여자들과 라포(rapport)를 형성하기 위해 일상적인 대화로 친근감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면담 일정과 장

소는 연구 참여자와의 협의 아래, 편리한 시간과 장소로 선정하여 실시하였으며, 사전에 연구 문제와 관련된 주요 면담 내용을 연구 참여자들에게 고지하였다.

면담방식은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반구조화된 면담과 비구조화된 면담을 함께 실시하였으며, 면담 시간은 회당 1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면담 내용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구한 후 모든 면담 내용을 녹음기를 이용하여 녹취하였으며, 면담이 끝난 후 바로 텍스트로 옮겨 분석과 해석의 자료로 활용하였다.

Table 2. Contents of interview questionnaire

content	Details
Personal characteristic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ge</li> <li>• Academic Background</li> <li>• Activity year</li> <li>• Military service exception or not</li> </ul>
Perception of Military Service Obligation and Military Service Excep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erception for Military Service System</li> <li>• Perception for Military Service Exception</li> </ul>
Experience of Military Service Obligation and Military Service Excep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xperience for Military Service System</li> <li>• Experience for Military Service Exception</li> </ul>

### 2.3.3 문헌자료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비참여관찰과 심층면담 이외에도 병역 의무 및 병역 특례와 관련된 각종 문헌 자료들을 수집하였다. 구체적으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으며, 미디어 자료(영상매체, 인쇄매체)를 통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 2.4 자료 분석

대부분의 질적 연구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된 자료를 전사(transcription)하는 단계를 거쳐 부호화(coding)를 한 후 연구문제에 적합한 주제(theme)를 생성하는 귀납적 범주화 과정을 거친다.

이 연구에서는 관련 문헌 수집, 비참여관찰, 심층면담 등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1차적으로 전사하여 Glesne(2006)의 지속적 비교법(constant comparative analysis)으로 의미를 찾아내는 과정을 거쳤다. 이후 2차적으로 개념화 및 범주화를 통해 현상을 설명하고 해석하는 단계를 실시하였다.

Table 3. Category and analyses

Topic	Secondary categorization	Primary categorization
Military	Military servi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ense of duty</li> <li>• Resistance</li> </ul>
	Special case of Military servi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uitability</li> <li>• Sensible way</li> </ul>
Disconnection	Career disconne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erformance</li> <li>• Physical ability</li> </ul>
	Economical disconne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Job</li> <li>• Living</li> </ul>

## 2.5 자료의 진실성

질적 연구에서 자료의 진실성을 통해 연구의 신뢰성 및 타당도를 입증할 수 있으며[13], 자료의 진실성은 자료수집방법의 다각화로 실현할 수 있다[14].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방법의 일환으로 관련 문헌, 비참여관찰, 심층면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삼각검증법(triangulation) 및 동료와의 협의를 통해 자료의 진실성을 확보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병역제도에 대한 병역 (비)특례 남성무용수들의 인식

대한민국의 남성은 의무적으로 만 19세부터 군 복무의 의무를 가진다[1]. 남성들은 특이사항이 없는 한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경력, 경제적, 사회적 단절을 겪게 된다. 이러한 손해를 감수하고 대부분의 남성들이 병역 의무를 다 하고 있는 반면에, 병역 특례 제도를 이용하여 군 복무 기간 동안 단절을 최소화하고 자신의 특기를 살려 국위선양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렇듯 병역의 의무와 특례가 공존하는 현실 속에서 연구 참여자인 한국 남성 무용수들이 병역 의무와 특례에 대해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한국 남성 무용수를 대상으로 병역 제도와 특례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심층면담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3.1.1 병역 제도에 대한 인식

연구 참여자인 한국 남성 무용수들이 무용수이기 전에 대한민국의 남성으로서 병역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심층면담을 실시하였으며, 그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3.1.1.1 병역 비특례자의 병역 제도에 대한 인식

병역 제도요? 군대는 대한민국 남자라면 모두 다녀오는 곳이잖아요. 군 복무 기간 동안 잃는 게 많겠지만, 분단국가인데 국민으로서 그 정도는 당연히 다녀와야 한다고 생각해요(나OO 인터뷰).

군대는 남자라면 다 다녀와야죠.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SNS에 군복 올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런 사진에 댓글로 멋있다는 등의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많은 걸 보면, 다른 사람들도 예전에 비해 군 복무에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콩쿠르 입상 같은 걸로 병역 특례를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죠(김OO 인터뷰).

이처럼 병역 특례를 받지 못한 한국 남성 무용수들의 경우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군 복무로 인해 손해 보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병역 특례로 회피할 수 있다면 회피하고 싶다는 반응을 보였다.

### 3.1.1.2 병역 특례자의 병역 제도에 대한 인식

군대는 당연히 갔다 와야 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군 복무 기간이 1년 9개월 정도로 줄어든 걸로 아는데 그 정도는 당연히 남자답게 다녀와야죠. 아마 저도 학생 때 나간 콩쿠르에서 입상하지 못했었다면 군대를 현역으로 다녀왔을 텐데, 기분 좋게 다녀왔을 거라 생각해요(김☆☆ 인터뷰).

군대 좋죠. 대한민국 남자라면 다 다녀와야죠. 저도 원래는 (같이) 무용하던 친한 친구들이랑 동반 입대하기로 했는데, 저만 병역 특례로 빠지고 나머지 친구들은 다 군대 가버려서 좀 외롭기 같았어요. 그때 그냥 친구들이랑 같이 동반 입대 했으면 재밌지 않았을까 생각해요(장OO 인터뷰).

이처럼 병역 특례를 받은 한국 남성 무용수들은 병역 특례를 받지 못한 연구 참여자들과 마찬가지로 군 병역 제도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를 종합해보았을 때 병역 특례를 받은 남성 무용수와 특례를 받지 못한 남성 무용수 모두 병역 제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3.1.2 병역 특례에 대한 인식

연구 참여자인 한국 남성 무용수들의 병역 특례에 대

한 전반적인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심층면담을 실시하였으며, 그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3.1.2.1 병역 비특례자의 병역 특례에 대한 인식

병역 특례 제도는 저 뿐만 아니라 예체능계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원하는 그런거죠. 군대 가서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친구 잃고, 돈도 못 벌고, 여자 동기들은 다 대학 원이나 아니면 좋은 곳에 취직하고...(중략)... 이런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죽도록 연습했는데...(박OO 인터뷰).

콩쿠르에서 입상한다는 게 사실 병역 특례가 목적이 아니라 제 실력을 인정받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 현역 때도 그렇고 지금도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분명히 다른 친구가 더 뛰어난데 왜 재가 (상을)타는 거지? 백이 좋은가? 재는 (학교가)어디 지? 하면서 실력이 아닌 다른 조건을 찾아보는 저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무용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 않아요(나OO 인터뷰).

이처럼 병역 특례를 받지 못한 한국 남성 무용수들의 경우 병역 특례 제도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며, 자신이 그 특례를 받기를 갈망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3.1.2.2 병역 특례자의 병역 특례에 대한 인식

병역 특례 제도가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몇 년간 같이 연습한 친구들이지만, 스펙과 입상시 주어지는 병역 특례 때문에 콩쿠르 기간만 다가오면 서로 잘 안 모이고 연습만 하게 돼요. 친구들은 입상에 실패해서 군대에서 2년을 보냈지만, 저는 그 시간 동안 계속 활동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고 싶은 무용도 하고 있고, 학업도 계속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장OO 인터뷰).

저는 콩쿠르 입상자에 한해서 병역 특례를 주는 제도는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 그 대상자가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밤새 콩쿠르 준비하며 연습했던 친구들이 생각나서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실력이 엄청 뛰어난데 입상을 못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군대를 다녀오는 사람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우수한 무용수들이 더 많이 발전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병역 특례 제도가 좀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김☆☆ 인터뷰).

이처럼 병역 특례를 받은 한국 남성 무용수들은 병역 특례 제도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그 특례를 받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해왔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병역 특례 제도를 받지 못한 사람들의 발전 가능성을

위해 병역 특례 제도가 좀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3.2 병역(비)특례 경험

병역특례 및 비특례자들의 대한 경험을 귀납적 범주화하여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았다.

#### 3.2.1 병역 비특례자들의 경험

병역 비특례자들을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두 가지 중점적인 단절이 일어나고 있었다. 경력단절과 경제단절로 이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자면 다음과 같다.

##### 3.2.1.1 경력단절

병역 비특례자들의 경우 신체건강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남성들에게 1년9개월의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한다[1]. 무용과 유사한 체육의 사례경우 운동선수 특성상 선수로 활약 할 수 있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전성기 때 군복무로 인한 경력단절로 지속적인 선수생활의 어려운 실정이다[3].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하여 연구 참여자들의 인터뷰를 살펴보았다.

처음 군대 자대 배치를 받고 너무 힘들었어요. 군대에서는 각이 생명이라 할 정도로 체식훈련이나 짐총훈련은 무용이랑은 (동작이)다르고, 자유시간이 있을 때 연습을 하면 좀 이상하게 쳐다보면서 눈치를 쥐서 짧게나마 있는 자유 시간에 마음 편하게 연습을 할 수 없었어요(박OO 인터뷰).

무용수의 최고 전성기라고 생각하는 나이는 20세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나이가 몸도 안 아프고 “왜 그거 있잖아요? 골병이 안 들었다고 하죠!” 그리고 훈련이 많이 되어 웬만한 기술들과 감정들이 훈련이 되어있는데 군대 가서 2년여의 기간을 군 복무를 하면 그만큼의 갭이 커지만 그 공백기를 따라가기 힘들어요. 지도 갔다 와서 무용을 계속해야하나 말아야하나 인생의 최고 갈림길에 고민 많았죠(나OO 인터뷰).

이처럼 연구 참여자인 한국 남성무용수들 중 병역 비특례자들의 경우 경력단절에 있어서 당사자들은 약 2년여 간의 공백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감을 갖고 있으며, 국내 수석 발리레노 중에서 군복무를 이행한 무용수가 거의 없을 정도로 군복무는 무용수에게 치명적[15]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병역문제를 회피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기 쉬우며[5] 우리는 위와 같은 사

례들을 우리는 미디어에서 간간히 접할 수 있으며 연구 참여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부정적인 견해를 볼 수 있었다.

##### 3.2.1.2 경제단절

병역 비특례자들은 경력단절 외에도 경제단절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인터뷰를 통해 살펴보았다.

아무래도 수입은 레슨이죠. 나름 작품을 잘 찢다고 했을 때는 한 작품에 꽤 받았어요. 작품이라는게 창의적인 상상력이 필요하다 보니 그만큼 작품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이며 시간이 많이 들어가요. 그만큼 잘 나오면 그만큼 받는거죠! 하지만 군대에 입대한 순간부터는 저급도 부모님 적게나마 드렸던 용돈도 뭐 다..사회에 나오니 빈털터리 같아 한동안 심란했어요(박OO 인터뷰).

큰 공연을 하면 ‘뭘 예를 들면 뮤지컬 앙상블처럼??!’ 장타 공연을 하면 아무래도 꾸준한 무용공연 페이(급여)를 받다보니 생활이 안정적이게 되고, 그만큼 공연을 뛰면서 이력도 하나 채워지고, 인기도 올라가요. ‘일석삼조라고 하죠?’ 하지만 뮤지컬계도 순환이 되는 장르고 한 번에 텅이 생기면 그 자리를 채우기가 힘들어요. “즉 오디션을 계속 보러 다녀야 해요.”(나OO 인터뷰).

이처럼 연구참여자인 군복무를 이행한 한국 남성무용수들은 경제적 어려움의 고충을 말했다. 사회에서는 레슨이나 공연으로 인한 금전수입으로 생계유지를 이어갈 수 있었지만 군복무 중에는 모든 경제활동이 비활성화되면서 복무를 마친 후에 사회로 돌아왔을 때 가장 어려움을 느낀다고 말하고 있었다.

#### 3.2.2 병역 특례자들의 경험

병역특례는 4주 동안 육군훈련소에서 기초 군사훈련을 받은 뒤 해당분야 특기를 활용하여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이행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휘·감독하에 병무청장이 정한 해당분야에서 34개월 복무[1]하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경우 병역특례를 체육계에서만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예술(무용, 음악, 미술)분야도 있다. 이 절에서는 예술요원으로 병역특례를 받은 한국 남성무용수들의 경험을 살펴보았다.

학생 때는 부모님께서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셨지만 아무래도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는 학원 강사 및 공연을 하면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제 능력을 더 키울 수 있었

죠. 그래서 콩쿠르에 나가서 상을 받아 병역특례를 받고 열심히 제 길을 걸어온 결과 지금은 저만의 공간인 무용 연습실도 마련하고 후배양성과 작품이랑 활동을 활발하게 하여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며 꿈을 위해 달려가고 있어요.(김☆☆ 인터뷰).

무용은 몸으로 표현하는 예술이니까 그 만큼 꾸준한 관리가 중요하지만 혼자만 실력이 좋다고 무용계에서 인정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 사회 안에서의 사회생활도 중요해요. 군입대로 흐름이 끈기면 다시 자리 잡기 힘들어요. 우리나라는 인맥이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많거든요. 현역으로 갔다 온 구들 중에는 그만둔 친구들도 꽤 많죠. 그 빈 시간 동안 치고 올라오는 후배들은 많거든요. 저는 다행히 노력의 결과를 병역특례로 보상 받아서 다행인거죠.(신OO 인터뷰).

이처럼 병역특례는 남성무용수들에게 있어 인생에 한 번은 넘어야 하는 산과 같다. 심적으로 많은 부담감이 있지만 꾸준한 연습과 트레이닝을 통하여 콩쿠르에서 상을 받아 합법적으로 병역특례를 받는 것이다. 또한 예술요원은 군복무기간 동안 개인 예술 활동을 지속하며, 국가가 요청할시 나라를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 하고 있다고 한다[16].

병역특례라는 것은 중요한 제도예요. 우리나라의 훌륭한 무용수를 세계로 알리려면 피치에 올라왔을 때 계속 한계 단식 더 올라가야 해요. 하지만 군대라는 곳에 가면 아무래도 무용수의 삶은 멈춰있다고 볼 수 있죠. 군대에서도 연습 할 수 있을꺼라는 생각을 갖은 친구들도 막상 입대 하고는 연습을 거의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역특례가 있는 대회의 그 압박감은 말로 표현을 못해요.(장 OO 인터뷰).

요즘에는 댄싱9등 여러 가지 오디션 프로그램들로 인해 무용 및 춤이 예전보다 많이 알려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 인식에 따라에서 예술이라는 장르로 변경되고 공연도 많이 보러오고 관심도 높아지고 공연문화 활성화에 도움이 되죠. 제가 알기로 댄싱9에 나온 남성무용수들은 거의 병역혜택을 받았을꺼 예요. 무엇이든 그 자리에서 최고가 된다는 건 꾸준히 지켜 나가야해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한 우물만 파라(김☆☆인터뷰).

위와 같은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병역특례를 받은 무용수들은 기초 군사훈련 후, 2년여의 공백 기간 없이 특기를 살려 각자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며 경력단절, 경제단절에서 벗어나 꾸준히 꿈을 향하여 진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 3.2.2.1 병역특례를 통한 우월감 획득

무용콩쿠르는 무용수의 성취감을 높이고 성취감을 지속하는데 도움을 준다[17]. 따라서 콩쿠르에 입상하여 병역특례를 받은 남성무용수들의 우월감과 자신감을 인터뷰를 통해 살펴보았다.

우선 콩쿠르에서 상을 받아 병역특례를 받은 건 명예를 얻었다는 거랑 같아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상을 받은 것만으로도 부러운데 거기에 병역특례까지 받아 부러움의 대상이 되죠. 그만큼 죽어라 하고 그 노력 끝에 빛을 본거죠.(김☆☆ 인터뷰).

제가 콩쿠르에서 상을 받았을 때 동기들이랑 후배들이 엄청 부러워했어요. 다들 저 지나가면 “금상 지나가나!”라고 하거나 웅성웅성 거리면서 “제가 이번에 금상이야!”라고 하기도 해요. 제가 노력한 만큼 해서 상도 받을 수 있던 거고 남들도 부러워하고요.(신OO 인터뷰).

연구 참여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병역특례를 받은 병역특례자의 경우, 비특례자들에 비해 우월감과 자신감에 대한 표현이 두드러졌다. 콩쿠르에서 수상하기 위해 수많은 부상을 안고도 땀과 노력을 통해 목표에 도달했듯이 특례자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이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고, 병역특례를 받고난 후에는 주변에서의 반응들을 통해 우월감이 생겼다고 이야기한다.

이는 특례를 받은 남성무용수들이 자신의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병역혜택을 부여받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한편, 체육계에서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올림픽메달리스트들은 메달획득을 통하여 다양한 경험과 자부심, 성취감형성이 되었고[18], 또한 출전 경험으로 자신이 하고 있는 운동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여 경기력 향상에 영향을 끼친다고 있다[19]고 제시하고 있어 이들 병역특례자들 역시 일맥을 같이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병역특례가 남성무용수들에게 최고의 특혜라고 볼 때, 한 분야에서 최고를 인정받은 무용수에게 병역특례를 주는 것은 일종의 보상으로서 적합[8]하다고 보여진다. 현재 시행중인 병역특례제도는 특혜대상인원이 소수[5]라는 점과 특례를 받을 수 있는 무용콩쿠르들이 극소수라는 점으로 병역특례 혜택을 더 확대해야 한다[9]고 볼 수 있으며 병역혜택을 무조건적으로 지원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균형 있는 시각으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잣대를 통해 형평성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7]해야 한다고 사료된다.

#### 4.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한국 남성 무용수의 병역 특례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남성들의 병역 의무에 대한 인식을 심층적으로 구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방법 및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한국 남성무용수들은 한국남성으로서 부여된 병역의무에 대하여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공통적 인식이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병역의무이해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시각이 있음을 확인 하였다.

둘째, 병역 특례를 받지 못한 남성 무용수들은 군 복무를 함으로써 경력 단절과 경제적 단절을 경험하였으며, 그로인해 사회로 복귀할 때 심리적 불안감과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병역 특례를 받은 남성 무용수들은 경력 단절, 경제적 단절에서 벗어나 꾸준히 특기를 살려 각자의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며, 그로인해 심리적 우월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후속 연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는 남성 무용수들의 병역 특례 사례를 통해 한국 남성들의 병역의무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심층적으로 구명하고자 하였다. 이는 우리사회에서 나타나는 병역문제에 대한 보다 다차원적인 시각에서 접근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연구의 대상은 남성무용자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보다 실제적인 자료를 얻는데 다소 장애가 있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연구참여 대상자를 보다 확충하여 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둘째, 이 연구를 통해 병역 특례를 받지 못한 남성 무용수들은 사회와의 단절을 경험하면서 무용계에서 점차적으로 벗어나게 되는 것으로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무용수들의 중도이탈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후속연구에서는 예술·체육 분야 병역 특례 제도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방안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REFERENCES

- [1]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2018). Selective service. <http://www.mma.go.kr/>
- [2]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2018). <http://www.law.go.kr>
- [3] D. H. Kim & M. J. Sung. (2015). Improving military sport policy for young talented athletes.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Law*, 18(3), 51-73.
- [4] S. J. Yun. (2008). Ballerino and military service exception. *segyeilba* retired from <http://www.segye.com/newsView/20080121002074>
- [5] S. J. Shon.(2011). A legal study on the special case of military service in athlete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Sport Policy*, 9(2), 109-121.
- [6] J. K. Lee & J. S. Yang. (2015) Theoretical Perspectives of Justice on the Military Service Privileges of Korean Athletes.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n*, 54(6), 63-79.
- [7] H. J. Lee. (2017). Measures to Secure Equity of the Special Case of Military Service for Athletes.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Law*, 20(1), 71-95.
- [8] J. H. Moon. (2011). *A Study on the Status of the Korean Government Dance Contest*. Master's degree. Daejin University, Pocheon.
- [9] B. C. Jin. (2014). *A Proposal for Improving Military Service Exemption for Dancers*. Master's degree. Kyung Hee University, Seoul.
- [10] Patton, M. Q.(2002). *Qualitative Research and Evaluation Methods (3rd ed.)*.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11] Y. C. Kim (2006). *qualitative researchmethodology 1*, Seoul: Moonumsa.
- [12] Glesne, C.(2006). *Becoming qualitative researcher: An introduction (p. 6)*. White Plain, NY: Longman
- [13] Denzin, N. K. & Lincoln, Y. S.(2011). *The sage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4th ed.)*.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14] Creswell, J. W.(2013).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Sage.
- [15] S. J. Kang(2008). 'Abolishment of military service for Korean dance concours' Diffuse repulsion of dance Academia. *The Dong-A Ilbo*. retired from <http://news.donga.com/3/all/20080116/8534067/1>
- [16] M. S. Park, H. S. Tae & B. C. Jin. (2014).A Proposal for Improving Military Service Exemption for Dancers.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Law*, 17(2), 195-237.
- [17] S. Y. Lee, Y. W. Choi & S. W. Hwang. (2017). The Relationship with the Motivation, Anxiety, and Achievement while Dance Major Students are Participating in Concours. *Official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ance Science*, 34(2), 1-15.

- [18] H. J. Kim & Y. K. Yun. (2017). Psychological capitals arisen from an olympic medal. *Korean Journal of Sport Science*, 28(2), 461-473.
- [19] Y. K. Yun & J. Y. Jeon. (2010). Psychological Influences of Experience in Olympic Participation. *Korean Journal of Sport Psychology*, 21(3), 93-109.

권 예 진(KWON, YEAJIN)

[정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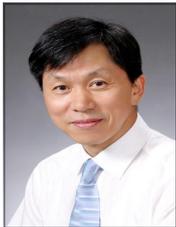
- 2008년 2월 :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창작과(예술학사)
- 2011년 2월 :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교육학석사)
- 2016년 3월 ~ 현재 :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 관심분야 : 무용, 문화, 신체이미지, 스포츠사회학

▪ E-Mail : 0419jenny@naver.com

이 중 영(Lee, Jong Young)

[정회원]



- 1977년 2월 :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교육학사)
- 1982년 2월 : 서울대학교 체육교육학과(교육학석사)
- 1988년 10월 : University of Illinois체육학 (철학박사)

▪ 1991년 3월 ~ 현재 : 한국체육대학교 사회체육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스포츠사회학, 사회체육, 사회이론

▪ E-Mail : jylee@knsu.ac.kr